

독일관념론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1. 변증법과 한국사회

한국 사회에는 변증법이 매우 깊숙이 관여해 왔다. 한국 현대사에 국한해서만 보더라도 변증법은 해방 이전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해방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국가중심의 경제력과 정치력의 확립이나 그에 대한 저항의 논리로서 작용하여 왔다. 이처럼 변증법에는 야누스적인 면이 있다. 한편에서는 부정의 힘을 통하여 지배의 절대화나 진리의 고착화, 삶의 폐쇄화에 저항하는 비판력을 지니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의 힘보다는 합(合)으로서의 긍정의 힘이 더 강조됨으로 인해서 지배를 정당화하고, 미래의 역사를 결정짓고, 삶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면도 있었다.¹⁾

우리의 현대사를 돌아볼 때 1945년 이전에는 국가나 국민이 모두 민족주의라는 가치 아래서 변증법이 지니고 있는 부정의 힘을 중시했다면, 그 이후, 특히 1950년 이후에는 지배자는 지배를 정당화하는 관점에서 변증법이 지니고 있는 합의 힘을 중시하였고, 반면에 민중은 국가중심의 독재 논리에 저항하는 관점에서 변증법이 지니고 있는 부정의 힘을 역시 중시하였다. 그래서 지도자가 추구했던 변증법은 복지의 땅을 약속하는 발전의 길로 칭송 받았고, 민중이 추구했던 변증법은 공산주의자로 몰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면은 역사적 상황들이 그 근거를 제공해 준다. 1945년 이전에는 헤겔 르네상스의 등장을 파시스트의 등장으로 비판하면서, 유물론적 관점에서 변증법을 독해하는 신남철, 박치우, 백남운 등이 주를 이루며, 이들은 하나같이 신체적 투쟁을 통하여 발전을 열어 가는 변증법의 부정성을 강조했다면, 1960년 이후에는 헤겔의 변증법을 국가 주도적 관념변증법으로 해석하고 개발독재를 정당화하는 변증법의 합(긍정)의 힘을 강조했다. 변증법이 이렇게 전혀 다르게 읽히게 되는 상황은 박종홍의 변증법 독해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는 50년대 이전에는 변증법의 부정적 힘을 부각시켰다면, 그 이후에는 합으로 나아가는 긍정의 힘을 강조하였다.

이 당시 국민교육헌장과 유신헌법에 관여했던 일군의 철학자와 법학자는 모두 헤겔의 관념 변증법을 통하여 국가 중심적 관념변증법으로 미화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 아래서 진행된 개발과 안보의 논리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합법적으로 구속하는 현상을 지니고 있었다. 경제성장논리 아래서 진행된 산업화는 인간의 소외를 극명하게 드러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과잉 억압적인 사회 현상에 분노하는 계층을 형성하도록 만들었다. 이들은 더 이상 합(合)을 중시하는 기존의 변증법 속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당시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이런 모순을 읽어 내고 분석해 내는 비판적 의식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당연히 사회변혁의 주체는 노동자보다는 학생 집단에 더 중심이 실리게 되었다.

1) 변증법은 정·반·합의 체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의 긍정성이 반의 부정성을 거쳐 합이라는 종합성에 이르게 있다. 그러나 진정한 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의 부정적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부정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합은 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으로서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변증법의 기본 뜻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반→합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정상의 모순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면과 합을 얻어내는 결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근거하면 현실의 모순에 저항하는 강한 부정성을 표출하게 되며, 후자의 경우에 근거하게 되면 모든 모순을 지양하여 종합을 완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는 저항성이 강조된다면, 후자의 경우는 통일성이 강조된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도 변증법의 이 양면이 상황에 따라 달리 부각되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는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변증법의 부정적인 결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네오마르크스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특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부정의 변증법’이 매우 강하게 부각되었다. 익히 알다시피 ‘부정의 변증법’은 서구의 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문화운동을 주도했던 중심 이론이다. 이 이론은 동구 공산권의 당관료주의와 서구 사회의 기술관료지배 전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마르크스의 노동이론이나 노동주체만으로는 후기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도입하여 인간 이성의 도구화와 일차원화된 인간의 내적/외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더 이상 외적인 경제적 조건에 국한해서 다루는 맑시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특히 이 이론은 정과 반을 거쳐 합(合)으로 나아가는 기존 변증법이 합(合)에 너무 힘을 실어 줌으로써 과정상의 ‘부정(反)’이 지니고 있어야 할 본래적 가치를 소실시켰음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헤겔의 변증법 역시 부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달하는 보편자나 무한은 ‘추상적 보편’이나 ‘악무한’(das schlechte Unendlichkeit)에 불과한 것으로 비판하며 경계하고 있다. 그의 변증법은 부정의 과정을 충실히 담아 낸 ‘구체적 보편’, ‘진무한’(das wahrhafte Unendlichkeit)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이론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바가 어떠한 것이 현실 세계에 적용됨에 있어서 보편적인 절대주의관이 강조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헤겔은 자신의 <법철학>에서 가족-시민사회-국가의 관계를 논하면서, 시민사회를 거치지 않은 국가는 고대의 가부장적 국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부정의 과정으로서의 시민사회의 단계를 충실히 겪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후대의 마르크스나 그람시 등은 그의 국가관은 이미 국가절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비판했다. 이처럼 우리 현실도 헤겔의 진의와는 무관하게 박정희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차원과 관련하여 변증법이 합(合)의 이름 아래 미화되고 합리화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철학에서는 반(反)을 강조하는 ‘저항의 변증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합(合)을 강조하는 ‘긍정의 변증법’, ‘건설의 변증법’이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변증법보다는 유물론이 집중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변증법적 유물론도 기계론적 유물론으로 독해되기가 심상이었다. 변증법론자는 곧 빨갱이로 취급당했다. 이처럼 이 당시에는 변증법의 특허권은 국가 통치지도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70년대에 학생 운동사에서 변증법은 또 다시 변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변증법이 지배자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파한 비판세력들은 변증법의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앞서 언급되었듯이 ‘부정의 변증법’으로 강하게 무장하게 되었다. 서구 문화운동의 주역들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과 학생이 주축이 되어 전개시킨 네오 마르크스주의의 ‘부정의 변증법’은 한국 사회의 변혁 운동에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부정의 변증법’은 한국 사회의 변혁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세계 전 지역에까지 파장되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그 당시 노동자들의 의식이 깨어 있지 못하였고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결집되어 있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국가지배주의 논리에 도전하여 모순을 타파할 수 있는 주체는 당연히 학생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부정의 변증법’이 서구 사회에서 사회운동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의 전략적 토대가 미약하였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적극적 대안이 없이 부정하기만 하는 율분의 철학 형태를 지님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를 우울한 상태로 치달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 더 이상 학생의 힘으로 문화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인간의 소외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군부 정권의 부당한 지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힘이

미약하였다.

그래서 80년대 한국 사회는 매우 과격한 전술-전략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 이제 학생운동도 더 이상 낭만적인 접근이 허용되지 않으며, 노동자와의 연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주 놀라운 사실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프랑크푸르트학파를 통해 이미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서구 사회와는 달리, 한국 사회는 이 시기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즉 ML파가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 다시 1950년 이전의 변증법의 부정의 힘이 이제 좀 더 치밀한 정치논리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사실 한국 사회에 사회주의사상이 도입된 이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물변증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변증법적 유물론에 관한 글과 번역물이 가장 많이 쏟아지게 되었다.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은 열정적인 실천주의 차원을 넘어 전술-전략적인 과학성을 확립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좌우 냉전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국내적으로는 군사독재로부터 비롯되는 억압의 시대가 종결을 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극단적 논리를 배격하고 점진적 변화를 도모하는 민주사회의 건설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철학계에도 이런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이나 포퍼의 점진적 공학주의, 롤즈의 정의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들은 세부적으로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심지어 대립되기도 하지만, 탈역사적이고 탈사회적인 보편적 이성을 거부하고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되어 가는 보편성이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일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헤겔이나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역사의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합(합)이 법칙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완결된 합으로서의 단정적 동일성이 아니라 되어 가는 동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의 이와 같은 입장은 사회의 중산층이 증대되는 사회에 매우 잘 들어맞는 이론이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극단 논리를 배격하는 중산층의 논리는 이들의 이론과 부합한다. 우리 사회도 선진국형 경제 모델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여기에 점점 더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운동이 활발해질수록 이들의 이론은 더 많이 현실성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 사회의 사회철학에 이들의 이론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성이 도구화되고 중심부가 여전히 주변부를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문제점이 그래도 이성을 신뢰하고 모던주의에 바탕을 둔 이들의 신헌리주의로부터는 극복되기 어렵다고 보는 일군의 철학 이론이 등장하였다. 그것이 바로 로티를 중심으로 하는 신헌용주의와 데리다, 리오타르를 근거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이들 이론 역시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이성의 통일성이 지향하는 구속을 거부하고, 아울러 차이성, 충돌성, 불가공약성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를 하나의 동일한 규범이나 법칙 속에 담아내려는 거대담론을 테러로 규정하고, 동일성으로 묶기보다는 차이성을 열어 주고 풀어 주는데 더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헤겔과 마르크스로부터 이어지는 변증법은 물론이고 절차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이성주의도 거부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사회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있지만, 과거의 헤겔이나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등장할 수 있는 개체성의 무시와 부당한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

험이 있어 결국 닫힌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개인의 고유성과 자유를 확립하는 데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의 부정부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동일성과 차이성 자체 안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성이 이들 양 입장에는 현실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통일을 추구하고, 어떤 차이를 추구하느냐가 중요하지, 동일성 자체나 차이성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변증법은 한국 현대 철학사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 박종홍이 본 칸트와 변증법

박종홍은 변증법적 논리학 이전에 일반논리학과 인식논리학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는 일반논리학과 관련하여 이 논리학은 대상의 형식적 구조연관에 머물러 존재의 동적인 면을 담아 내지 못하며, 나아가 논증·발견의 논리로부터 창조·발명의 논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²⁾

그는 또한 인식의 내용에 관계하지 않고 형식에만 관계하는 일반논리학의 차원을 넘어 인식의 내용에 대해서 관계하는 인식논리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하였다. 그가 보기에 이 인식논리학도 일반논리학과는 달리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의 모순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못하였다.³⁾ 그는 칸트의 선형적 인식논리학에 대해서 사유의 형식과 존재의 내용을 종합하려고 한 점에 대해서 일반논리학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변증법적인 완전한 종합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였다. 그는 칸트의 ‘넣어서 생각함(hineindenken)’이 지니고 있는 선형논리학도 인식주관에 머물러 있는 사변적 실험에 불과하지 “신체적 노작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재적 형태를 만드는 데까지 나오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⁴⁾ 그는 “인식은 단지 의식 내에 있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행위에 있어서 성립한다”⁵⁾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인식의 논리는 합리성과 실증성이 변증법적으로 상호 매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⁶⁾ 즉 인식의 논리는 이성의 형식과 사실적 내용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상호 매개되어 구체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야 한다.⁷⁾

박종홍은 이와 같은 관점 아래서 변증법적 논리학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그는 고대부터 헤겔까지의 변증법의 역사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특히 헤겔의 변증법 분석에 상당한 양을 할애하였다. 사실 그가 앞서 분석한 일반논리학과 인식논리학에 대한 비판은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학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학에 입각하면 일반논리학과 인식논리학은 ‘추상적인 오성의 계기’에 머물러 있다. 이 단계에서는 ‘추상적 보편성’과 ‘구체적 특수성’이 대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헤겔 역시 부정적(소극적)인 이성의 계기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하여 ‘구체적 보편’을 확보하는 긍정적(적극적/사변적) 이성의 계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사변적 이성은 분별적인 오성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를 내포하여야 된다. 모순을 그저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실에 있어서 성립시켜야 하는 것

2) 박종홍, 『일반논리학』, 전집 3권, 6, 173쪽.

3) 박종홍, 『인식논리학』 (1953/1972), 전집 3권, 204-205쪽.

4) 박종홍, 『일반논리학』, 전집 3권, 176쪽.

5) 박종홍, 『인식논리학』, 전집 3권, 361쪽.

6) 박종홍, 『인식논리학』, 전집 3권, 360-62쪽.

7) 박종홍, 『인식논리학』, 전집 3권, 362쪽.

이다.”⁸⁾

박종홍은 자신의 철학 체계 내에 헤겔이 주장하는 모순과 지양·종합의 개념을 수용하되, 그것들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신체적 차원으로 고양시키고자 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이미 해방 이전의 철학관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는 “신체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대립의 격렬함을 놓치고 다만 그것의 조화의 측면, 혹은 극복된 결과에만 주의를 돌리는 때문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제기하면서 현실에 대한 관념적 초월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⁹⁾ 그래서 그는 “모순과 실천, 과연 모순은 실천으로 인하여 파악되고 다시 실천으로 인하여 지양된다. 이것이 곧 산 역사의 과정이며, 또한 현실적 존재의 심각한 구체성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주장하였다.¹⁰⁾ 이처럼 그는 이 당시에 변증법을 관념적으로 읽기보다는 다분히 현실적인 실천적 시각에서 읽어 내고자 했다.¹¹⁾ 나아가 그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실존주의자들보다는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이 더 필요한 시대임을 역설하였다.¹²⁾ 그는 데카르트, 칸트, 하이데거, 야스퍼스 모두 의식일반의 이성적 기능에 머물러 버림으로써 실천이 구체적인 신체적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념화하여 버린 점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이들이 추구하는 이해의 논리, 구(상)상력의 논리는 깨우침의 논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행위나 건설의 논리에 이르지 못하였다.¹³⁾ 그는 이 당시 변증법을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현실로 되돌아오고, 향내와 향외가 지양·종합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 그의 변증법 이론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어느 정도 친화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¹⁴⁾ 앞서 이미 맑시즘에 대한 분석에서 제시했듯이, 박종홍은 보그다노프, 블레히-노프, 부하-린 등이 주장하는 기계론적 유물론이나 데보-린 일파가 주장하는 헤겔 중심의 관념론적 경향을 비판하면서, 이들의 이론이 마르크스, 레닌이 주장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의미를 충실히 살려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¹⁵⁾

그러나 1950년 이후로 오면서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완전히 기계론적 유물론으로 규정하게 되며, 향외적으로 이탈한 유물사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비판할 때도 변증법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유물론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은 의식을 단순히 존재의 반영으로 파악함으로써 의식의 자발성, 능동성을 부정해 버린 향외적 태도의 극치였다.¹⁶⁾ 또한 변증법적 유물론은 물질 일원론적 관점에서 있음으로써 감각의 주체적인 반영적 기능을 수동적인 반응적 기능으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¹⁷⁾ 그래서 그는 레닌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8) 박종홍, 『변증법적 논리』(1977), 전집 3권, 418쪽. 헤겔은 추상적 동일성으로서의 오성적 방법을 지양하여 분석과 종합의 통일로서의 사변적 방법을 추구한다. 그래서 헤겔은 추상적인 오성적 측면은 변증법적인 부정적-이성적 측면으로, 그리고 이것은 다시 사변적인 긍정적-이성적 측면으로 지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Werke 7,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24쪽. / G. W. F. Hegel, *Enzyklopädie I*, Werke 8, 179쪽)

9) 박종홍,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Sorge에 관하여」(1933), 전집 1권, 200쪽.

10) 박종홍, 「모순과 실천」(1933), 전집 1권, 355쪽.

11) 박종홍, 「현대철학의 동향」(1933), 전집 1권, 356-365쪽. / 박종홍, 「우리가 요구하는 <이론과 실천>」(1945년 이전), 전집 1권, 408쪽.

12) “<자연변증법>이 더 일층 철학의 중심문제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할 시기가 당도한 것이 아닐까.”<박종홍, 「현대철학의 제문제」(1938), 전집 1권, 413쪽>

13) 박종홍, 「이해와 사유」(1942), 전집 1권, 450-451쪽.

14) 황경식,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 열암기념사업회 엮음, 『현실과 창조』, 51-52쪽 참조.

15) 박종홍, 「현대철학의 동향」(1933), 전집 1권, 363쪽.

16) 박종홍, 『철학개설』(1954/61/64), 전집 2권, 250-254쪽. / 박종홍, 「공산주의철학비판(1)-변증법적 유물론 비판」(1965), 전집 2권, 561쪽.

“물리적·화학적인 반응이나 반작용을 의식적인 감각과 유사성을 가졌다고 하여 같은 반영이라고 함은 엄청난 유추의 장난이요, 이 세상의 어떤 현상 치고 반영 아닌 것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¹⁸⁾

“설사 정신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이 반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인간은 그 반영을 자각하는 것인 만큼 물질 상호간의 반응작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¹⁹⁾

이처럼 기본적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은 인간의 의식을 카메라와 동급에 놓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은 미래 역사와 관련하여 법칙적 읽기를 시도하지만, 그 속에서 발생하는 양적인 차원에서 질적인 차원로의 비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그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이 역사를 형성하는 인간의 능동적 힘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향외적으로만 나가던 변증법적 유물론도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에 부딪칠 때 역시 주체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계획하며 건설하는 데는 물질이 주체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체요 내가 주체인 것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이 주체를 어떻게 파악하려는 것일까.”²⁰⁾

이처럼 그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성은 결코 물질로부터 나올 수 없다고 보았다.²¹⁾ 자유로운 인격으로서의 향내적 요소는 결코 향외적인 측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²²⁾

하지만 다른 한편 키에르케고르를 중심으로 주장되는 질적 변증법은 주체의 향내적 인격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미를 담아 내지만, 그것이 구현되는 향외적 요소로서의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²³⁾ 그는 이제 이 결여된 향외성을 메우기 위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이 아닌 과학철학·실용주의를 동원한다. 이처럼 그의 철학 전반에는 끊임없이 향외적 요소와 향내적 요소를 지양·종합하는 변증법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맑스와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맑스와 키에르케고르는 비록 치중하는 면에 있어서 물질과 정신이 차이는 있으나, 변증법을 다룸에 있어서 종합·통일의 계기보다는 모순의 계기를 강조하는 점은 일치한다. 헤겔의 변증법은 관상적 태도였기 때문에, 즉 종합·통일을 너무 쉽게 다루어 이른바 관념변증법에 빠졌다 하여, 모순의 계기가 결코 것처럼 용이하게 지양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한다.”²⁴⁾

17) 박종홍, 「공산주의비판(1)-변증법적 유물론 비판」(1965), 전집 2권, 561-567쪽.

18) 박종홍, 같은 책, 566쪽.

19) 박종홍, 「공산주의비판(II)-사적 유물론 비판」(1966), 전집 2권, 578쪽.

20) (박종홍, 『철학개설』, 전집 2권, 256쪽).

21) 박종홍, 같은 책, 257-258쪽.

22) 박종홍, 같은 책, 260-61쪽.

23) 박종홍, 같은 책, 273, 293, 324쪽.

24) 박종홍, 「공산주의철학비판(1)-변증법적 유물론 비판」, 전집 2권, 570쪽. 황경식은 열암의 변증법 이론과 관련하여 그의 변증법은 칸트적인 실천 이성의 우위도 아니고, 헤겔적인 관념론적 변증법만도 아니고 마르크스적인 유물변증법만도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의 변증법에는 형이상학적 입장 표명이나 존재론적 함축이 매우 절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경식은 그의 변증법을 “인식변증법”으로 부르려고 한다(황경식,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 열암기념사업회 엮음, 『현실과 창조』, 52쪽).

나아가 그는 이런 변증법적 방법을 동양 사상에도 적용하였다. 그는 동양사상 안에는 사람의 이치와 사물의 이치가 종합되어 있다라고 보았다. 그는 이 동양사상을 통하여 변증법의 완성으로서의 진정한 철학을 확립하고자 했다.²⁵⁾ 그는 이 동양사상에 기반을 두고 실존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향외적인 것과 향내적인 것,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의 일치를 확립하고자 했으며, 안과 바깥,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을 지양·종합하고자 했다.²⁶⁾ 그리고 실제로 그는 4월 혁명은 이런 단면을 보여주었다고 보았다.

그가 중시하는 변증법도 사실은 현실 속에서의 철학, 우리의 철학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열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유학 속에서 제기되는 주리론과 주기론의 관계를 변증법적 발전의 양 계기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지눌과 원효에 대한 분석에서 의식과 현실의 종합으로서의 변증법적 태도를 제시해 보고자 했다.²⁷⁾ 박종홍의 변증법에 대한 이런 이해는 전통을 살리고 민족의 중흥을 위한 국가주의 논리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와 같은 상황은 신체적 변증법이나 부정의 변증법이 매우 강조되고 있었던 전반기의 변증법에 대한 이해와는 상당히 멀어지는 감을 주게 되었다. 물론 박종홍은 부정의 변증법, 신체의 변증법을 창조의 변증법, 건설의 변증법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변증법의 진정한 이상을 실현해 보고자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의 창조의 변증법과 건설의 변증법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진행되었던 경제개발과 조국근대화의 논리 아래 또 하나의 국가 주도적 지배논리에 포섭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의 변증법 이론에는 자신의 부정의 논리가 지향하고 있는 부정성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25) 박종홍, 같은 책, 327-328, 365, 368, 476쪽.

26) 박종홍, 같은 책, 478-480쪽.

27) 박종홍, 「지눌의 사상」(1972), 전집 4권, 190-92쪽. / 박종홍, 「한국철학과 한국불교」(1967), 전집 4권, 195쪽. / 박종홍, 「한국 유학의 특징」(1972), 전집 4권, 256쪽. / 박종홍, 「여러 면으로 전개된 성리학」(1976), 전집 4권, 540쪽. / 박종홍, 「한국적 가치관의 새로운 방향」(1964), 전집 5권, 479쪽. / 박종홍, 「한국사상의 방향」(1966), 전집 5권, 505쪽. / 박종홍, *The Development of Modern Ideas in Korea*, 전집 5권, 704-709쪽. / 박종홍, 「평범한 생활 속의 철학」(1977), 전집 6권, 288-289, 291-292쪽. / 박종홍, 「마음의 자세」, 전집 6권 377-378쪽. / 박종홍, 「새로운 것」(1959), 전집 6권, 418쪽.